

새들도 쉬어가는 서쪽 끝 3형제 섬

격렬비열도

이재언 _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연구원

새들도 쉬어가는 서쪽 끝 3형제 섬, 격렬비열도

2014년부터 지상파 방송과 중앙의 우수한 언론사들이 앞을 다투어 방문하면서 취재를 했던 섬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7000만년 전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섬인 이 섬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등대건물이 한데 어울려져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최근에는 섬의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수산 자원과 군사적 요충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오직했으면 해수부에서 유인 등대를 인공 위성의 원격조정으로 무인등대화 시키는데 이 섬만은 예외이다.

최근에 황금 어장터인 이곳에 중국의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이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풍부한 어장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몰래 들어와 우리 해경 경비정과 충돌이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독도와 남단 끝 섬인 마라도는 주민들도 거주하고 관광선이 오가지만 서해의 최서단인 격렬비열도는 무인도로 방치되어 있다. 현행국제법상 사람이 살지 않으면 단순한 바위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독도는 김성도씨 부부가 살고 있어 좋은 예가 되듯이 섬을 그냥 비워두면 영토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격렬비열도에 유인 등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요즘에는 갈수록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데 격렬비열도를 최근 어느 갑부인 중국인이 사들이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3개의 섬 가운데 등대가 있는 북격렬비열도는 제외하고 서,동 격렬비열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격렬비열도 소유주는 최근까지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는 중국인이 16억원 정도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만약에 중국인이 이 두 개의 섬을 사들이면 훗날 중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해양수산부가 2014년 7월 국유화를 위해 매입을 시도했지만 소유주와의 입장차로 결렬되었다고 한다. 해수부는 “공시지가의 한 3배정도 되는 금액인 2억원 선을 갖고 토지소유자분게 말씀을 드렸는데 소유자께서 생각하시는 금액하고 너무 많이 나서...” 서,동격렬비도 외국인 매입설은 섬 소유주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알려지면서 국가가 국유지로 사들이기로 하지만 금액차이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부자가 이들 섬을 사려는 속셈은 무엇일까? 지역을 분쟁화하려는 것은 중국어선의 60%의 불법조업이



격렬비열도 부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역사적인 배경도 있다. 격렬비열도는 육지인 신진도와 4km 떨어진 가의도 소속이며, 가의도는 중국인들의 유배지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의도에 중국인 가의(賈誼)란 사람이 이 섬에 피신해 왔다가 가(賈)씨는 곧 떠나고 그를 수행했던 주(朱)씨 만이 남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가의도에는 가씨 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씨, 김씨, 고씨만이 13대째 살고 있다.



충남도청은 “격렬비열도를 유인도화 시켜서 관광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 섬의 풍광을 활용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격렬비열도를 중국 자본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이들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국내의 대리인을 내세워 매입하는 것까진 막진 못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2014년도에는 ‘내 사랑 격렬비열도’ 제목으로 대중가요로 만들어졌다. 가수 박현빈의 히트곡 ‘곤드레만드레’의 작곡가 이승한씨가 곡을 만들고, KBS 탐밴드를 탄생시킨 김광필 PD가 노랫말을 붙인 노래이다. 웅장하고 경쾌한 멜로디로 만들어진 이곡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노래를 불러 화제다. 2년전 이 노래를 완성했으나 부를 사람을 찾지 못하다 주부가수 김달래(본명 김은하)씨가 취입, 빛을 보게 됐다.

노래를 만든 제작자 측은 “국민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외로운 섬 격렬비열도를 소재로 만든 노래가 그 중요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없는 섬도 만들어내는데 좀 아쉽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적 관심이 정말 대단하다. 이에 비해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는 그 이름조차 아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바다와 섬과 영토, 그리고 소중한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섬의 유래

지명 유래를 보면 격렬비열도(格列飛列島)라는 이름은 멀리서 보면 모여 있는 섬들이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 줄임말로 격렬비도, 격비도 또는 격비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륙된 태안의 신진도에서 서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다. 충청남도의 최서단으로 유인 등대섬인 북격렬비도, 무인도인 동격렬비도·서격렬비도 등 3개의 섬이 삼각형태를 이루고 있다. 각 섬의 최고봉은 동격렬비도 133m, 서격렬비도 85m, 북격렬비도 101m로 비교적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 경사가 급하고 평지가 거의 없다.

북격렬비열도

무인도→유인도→무인도→유인도

2백 해리 시작점인 격렬비열도는 모두 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일행들이 탐사선 등대호를 타고 답사한 섬은 만형격인 북격렬비열도이다. 3개의 섬 중에서 유일하게 등대 시설물이 만들어 진 북격렬비열도는 1909년 6월부터 등대관리원 3명이 거주한 곳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4월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분으로 모든 인원이 철수시킨 다음 20년이 넘도록 무인도로 방치해 왔다. 그러다 2015년 9월 해수부에서 3명의 등대원을 상주 시켜 북격렬비열도는 유인도서로 변했다. 이 섬은 서해바다의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가 태안반도를 향하여 밀려오는데 온 몸으로 파도를 막는 파도막이 섬이다.

200해리 영해깃점

서해의 최북단인 백령도, 서쪽에는 격렬비열도와 어청도 그리고 서남해안에는 가거도가 있다. 최남단에는 제주의 마라도와 동쪽에는 독도가 있다. 우리나라 모든 섬들은 하나 같이 귀하고 중요한 우리 국토이지만 이들의 섬은 우리나라 영해를 넓히는 2백 해리 기점이다. 백령도, 가거도, 마라도, 독도 등은 사람들이 살면서 육지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지만 북격렬비열도는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처녀 같은 신비의 섬이다. 마치 조각칼로 깎아낸듯 한 절벽은 7000만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북격렬비열도 남쪽 절벽 아래로는 멋진 기암괴석들이 이어지는데 조물주가 빚은 예술작품이다.





황금어장 + 군사적 요충지

북격렬비열도는 동백나무와 상록수림, 멸종위기 새인 매가 번식지로 생태보전 특정 도서로 지정됐다. 예전부터 이곳은 조기 뿐만 아니라 황금어장터로 유명한 곳이다. 동력선으로 가도 한나절이 걸리는데 이곳에 풍선을 타고와 조기를 잡았던 치열한 삶이 녹아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낚아빠진 돛단배에 수백 리 험악한 뱃길을 목숨을 걸고서 달려온 선조들의 애환이 깃든 곳이다.

태고의 신비한 자연을 간직한 북격렬비열도는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하여 군사적 요충지이다. 제2의 독도로 불릴 만큼 상징성이 있는 섬이지만 사람들은 이 섬의 이름조차도 모르며 상태이다. 지리적으로 중국의 산둥반도와 가까워서 중국 어선이 수시로 들어와 불법 어업을 하는 장소로 해경 경비정과 추격전도 벌이는 곳이다. 일기 예보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이곳은 배타적 경제 수역기점이 되는 지역이다. 공해까지는 불과 2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중국 산둥반도까지 2백74km 떨어져 있다.

생태의 섬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2002년 북격렬비도를 전국에서 125번째로 특정도서로 지정했다. 북격렬비도 식물상을 보면 정상 일대에 상록활엽수림인 동백나무가 자생하며 섬 전체적으로는 원추리, 둥굴레, 땅채송화, 고사리, 등이 군락을 이루며 팽나무, 뽕나무, 후박나무 등도 자라고 있다. 해수면 근처에 위치한 절벽에는 갯기름나물, 도깨비고비, 땅채송화, 사철쭉, 밀사초, 감국, 원추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섬 곳곳에는 달래, 거지덩굴, 참나리, 별꽃, 갈퀴덩굴, 용가시나무, 큰천남성, 익모초, 담쟁이덩굴, 팽나무, 유채 등의 다양한 식물들을 서식하고 있다.

북격렬비도의 가장 인상적인 식물은 동백나무 군락이며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한 식물이다. 2002년 특정도서로 지정되었지만 북격렬비도는 등대 공사와 모노레일 설치 등 사람들의 출입 많고 낚시객들의 선호하는 섬이다. 앞으로 유인도가 될 북격렬비열도를 제외하고 동, 서격렬비열도가 식물의 보전 상태가 뛰어나 특정도서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격렬비열도와 동격렬비열도

북격렬비열도가 중심으로 하여 동격렬비열도는 950m, 서격렬비열도는 1.8km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북격렬비열도에서 서쪽으로 그다지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한 섬, 바로 서격렬비열도가 정면에 위치한다. 거의 삼각편대를 유지하고 있다. 세 개의 섬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실질적으로는 최서단의 섬은 바로 이 섬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직접 섬에 내려보는 것도 좋지만 배를 타고 서격렬비열도를 돌아보면 각양각색의 바위

가 눈을 즐겁게 해준다. 서격렬비열도는 금강산의 만물상을 연상시키는 아기자기한 괴암기석의 절벽이 섬 주위를 감싸고 있다. 면적은 0.13km²에 불과하지만 최서단에 위치, 우리의 영해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세 섬 중 가장 큰 동격렬비열도(0.15km²)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앉은 모습의 큰 바위를 중심으로 양 옆



에 선 굵은 바위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동격렬비열도는 또 다른 비경을 간직하고 있다. 거대한 해식동굴속의 어둠 뒤로 드러나는 햇살 가득한 바위절벽. '해금강'이 거기 있다. 꿩이갈매기들의 휴식처로 아기자기한 서격렬비열도와는 달리 남성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다.

격렬비열도 동쪽으로 석도, 우배도, 병풍도, 난도, 궁시도 등 눈부신 자태의 무인도들이 점점이 이어져 있다. 얼마 되지 않은 거리. 동격렬비열도에서 대각선 방향이다. 앞에 동그란 형태의 섬이 있고 갯바위 위에 건물 한 채, 산 정상에 태양광집열판 등의 특수 시설물이 보인다. 동격렬비열도에서 채 3분도 걸리지 않아 닿은 섬. 바로 중심섬인 북격렬비열도다.

지금부터 36년 전의 사건 기사를 보니 웃음도 나오고 스릴이 있지만 가난한 그 시절에 생계를 위해 동격렬비열도로 약초를 캐러 갔다가 한 겨울에 죽을 뻔 한 이들의 사연을 소개한다.

서해의 무인도인 동격렬비열도로 약초를 캐러갔던 한마을 주민 12명이 섬에 갇힌지 44일만에 옆섬의 등대수에 의해 발견돼 극적으로 구출됐다. 이들은 8일 상오 1시 10분 해경 경비정을 타고 군산항에 입항, 다시 살아온 기쁨에 눈물이 뒤통까지 된 채 배에서 내리며 환호와 만세를 외쳤다. 절해고도 생활 44일, 배가 도착한다고 약속한 난 이후 19일 동안 절망과 실의에 빠졌던 이들은 섬생활의 어려움을 말해주듯 수염이 얼굴을 덮었고 피골이 상접한 초췌한 모습이었다.



약초 캐러간 한마을 주민 12명 무인도서
절망 19일-1979.02.08_경향신문

〈출발〉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 상오 10시 약초채취업자인 이정호씨(50·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곡리 23)의 요청으로 하루에 2천원씩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안흥에서 27마일 떨어진 충남 서산군 근흥면 동격렬비열도로 약초를 캐러갔다. 박광일씨(37·서산군 안면면 승언리 136) 등 서산군 안면면과 남면 일대 주민 10명은 이씨 부부의 안내로 이날 6만 원에 빌린 5t급 어선을 타고 25일 예정으로 서산군 태안읍 모항리를 출발, 하오 2시쯤 현지에 도착한 후 약초를 깎 동안 거거할 천막을 치고 약초 채취 작업에 나섰다.

〈조난 및 섬 생활〉

이 섬에 도착한지 25일만인 지난달 18일 이들을 태우러 오기로 했던 해성호(5t·선주 박철일·42)가 나타나지 않아 19일동안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이들은 도착 즉시 구들을 놓은 천막 두 개를 설치, 섬 생활에 들어갔다.

이들은 다음날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하오 5시까지 섬을 뒤지면서 한약재인 전초와 달래 등을 채취했다. 그러나 그들을 태우러 오겠다고 약속했던 지난달 18일이 지나도 배가 나타나지 않자 초조와 불안감에 빠져 약초 채취를 단념한 채 구조의 날만을 기다렸다. 지난 달 28일 이곳에서 구정을 맞게 된 이들은 집 생각과 추위 등으로 절망과 허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진 이들은 매일 불을 피워 연기를 올리고 흰 옷가지를 흔들며 살려 달라고 호소했으나 매마침 이 일대 해상에는 강풍이 몰아쳐 지나가는 배 한척 없었다.

출발할 때 갖고 간 쌀 5가마와 보리쌀 1가마가 1월 하순부터는 거의 바닥이나 이들의 초조와 절망은 한결 더했다. 언제 구조될지 모르게 된 이들은 양식을 아끼기 위해 섬 주위를 뒤져 해초와 조개류 산무우 등을 채취, 굶주린 배를 채웠다. 지난달 30일에는 눈까지 크게 내려 천막 안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겼다.

〈구조 요청〉

가만히 앉아 있다 굶어 죽느니보다 최선을 다해 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의한 이들은 모닥불을 피워 연기를 내는 방법, 비닐 종이와 마대를 한데 엮어 만든 깃발을 산꼭대기에 꽂아놓는 방법, 모두가 일시에 고함을 치는 방법 등으로 본격적인 구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방법을 되풀이 하다 7일 이곳에서 0.8마일 떨어진 북격렬비열도 등대장 박완서씨에 의해 이들의 구조 요청이 확인됐다. 이들이 피운 연기를 발견한 박씨는 안흥 무선국에 SOS를, 안흥 무선국은 군산 해경에 이를 타전, 구조의 손길이 미치게 된 것이다.

〈구조〉

안흥 무선국의 연락을 받은 해경 경비정은 이날 하오 1시 군산항을 출항, 이들이 집을 떠난지 44일만에 배가 도착하기로 했던 날로부터 19일만인 이날 하오 6시 10분 동격렬비열도에 도착,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이들을 구조한 것이다. 섬에 도착한 경비정은 풍량이 심해 섬에 접안하지 못한 채 섬 주위를 세바퀴나 순회했으나 섬에는 사람이 일씬도 하지 않았다.

경비정에서는 계속 사이렌을 울리고 확성기를 통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치자 산꼭대기에서 이들 중 2명이 나와 옷을 흔드는 모습이 함장 고순하 경위(40)의 쌍안경에 잡혔다. 경비정이 섬에 겨우 접근하자 12명이 비틀 걸음으로 다가왔다. 이들 중 남자들은 수영이 길게 자랐고 옷은 때에 찌들어 사람 모습이 아니었다. 경찰관이 이들을 하나 하나 부축해 경비정에 옮겨 신자 재생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귀환〉

이들을 구조한 해경 경비정은 7일 하오 7시 동격렬비열도를 출발, 6시간 10분간의 항해 끝에 8일 상오 1시 10분 군산항에 돌아왔다. 이들은 굶주림과 피로에 지쳐 초췌한 모습이었으나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만세까지 부르며 배에서 내렸다. 이들은 하루라도 더 연명하기 위해 굶주리며 식량을 절약해서인지 아직도 1말반 가량의 쌀이 남아있었고 비닐봉지 속에는 그동안 캐 모은 한약재인 전호 50관과 달래 40관(시가 50만원)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들은 도착 즉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2대의 앰블런스에 태워져 도립군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8일 낮부터 가족이 있는 서산으로 돌아갔다. ◀

